



카메라고발



서산시 예천동 센텀파크뷰서희 불법현수막게시 눈총 서산시 예천동에 위치한 센텀파크뷰 서희가 일반 분양에 들어가면서 잠재 홍보를 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예천동 센텀파크뷰 서희 홍보팀이 단속을 피하려고 공휴일인 14일 저녁부터 도로 변에 불법으로 현수막(사진)을 게시해 눈총을 사고 있다. 도로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제보자 모씨는 서산시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처벌이 약해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다고 지적 했다. 인근 당진시의 경우 불법현수막을 게시 했을 경우 강력한 처벌과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는 공문을 아파트 시행사에 발송해 불법 현수막 게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센텀파크뷰 서희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서희건설이 서산시 예천동 507번지 일대 약 3만1000여㎡의 부지에 66㎡ 325세대, 80㎡ 33세대 등 총 659세대를 공급하기 위해 현재 터 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충남도교육청 새해예산 3조 4516억 원 확정

3대 무상교육 혁신교육 강화, 포용국가 비전 뒷받침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실현하고, 문재인 정부의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비전'에 맞추기 위한 내년도 예산 3조 4516억 원을 14일 도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이는 올해 본예산 3조 2637억 원 보다 5.7%(1879억 원) 증가한 것으로 ▲인건비 1조 9339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252억 원 ▲교육복지지원 3038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43억 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5469억 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363억 원 ▲평생교육 83억 원 ▲교육행정인원 456억 원 ▲기관운영관리 336억 원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는 937억 원 등이다. 이날 확정된 2019년 충남교육청 주요 예산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685억 원(수업료 467억, 학교운영지원비 159억, 교과서 59억 원)을 투입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730억

원,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비 59억 원을 반영 하였다. 아울러, 광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 4089억 원,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 2884억 원,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 359억 원,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 1023억 원,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 359억 원을 편성하여 충남 혁신 2기 주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학교신설, 외벽수선 및 장호교체, 냉난방기 교체,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과 미세 먼

지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학생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행복 공간 조성 사업 등에 총 2367억 원이 투입된다. 도교육청 유흥종 예산과장은 "도의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일부 사업의 조정 및 삭감된 예산은 사업계획을 꼼꼼히 살펴본 후 증액이 필요할 경우 도의회와 협력하여 추경 등을 통해 확보,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베이스볼 드림파크 신축 준치 결의안 채택

중구의회 의원 전원, 허시장 공약사항이행 · 신축 야구장 중구 건립 조성 촉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서명석)는 14일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안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베이스볼 드림파크(야구장) 신축 준치 결의안」을 전체의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안형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전시는 허태정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한밭종합운동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2만여 석 규모의 베이스볼 드림파크(야구장)를 조성

할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며 "그러나 대전시가 기존 공약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사업지 선정을 위한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용역」업체를 최종 선정하면서 각 자치구가 신축 야구장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구의회 의원 12명 전원은 허태정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사항이자 취임 후 강조사항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신축 계획의 준치를 촉구하며 대전시는 25만 중

구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각 자치구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라."고 밝혔다. 한편, 1964년 준공되어 전국에서 가장 노후된 야구장으로 손꼽히는 부사동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는 1만 3,000명 규모의 협소한 관람석과 만성적 주차공간 부족으로 지역주민과 관람객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도, 지적측량·지적재조사·공간정보 '전국 최고'

충남도가 올해 국토교통부의 지적 및 공간정보 등 3개 평가에서 모두 '우수' 이상의 성적을 거두며 '토지행정 전국 최고'임을 재확인했다. 도는 올해 제1회 전국 지적측량경진대회 '대상', 국가공간정보 활용 평가 '우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최우수' 기관으로 각각 선

정되며 국토교통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지적측량경진대회는 측량 수행 공무원들이 각자의 기술을 겨룬 전국대회로, 대상 수상은 지적 업무를 선도하는 충남의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국가공간정보 활용 평가에서는 ICT 기술을 활용한 위치 기반 증

강현실 플랫폼 구축,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등 공간정보 기초 인프라 구축과 함께, 도정 접목 노력을 인정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적재조사 사업 최우수 기관 선정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도와 시·군·구 직원들이 힘을 합쳐 짜임새 있는 계획을 수립한 점에서 호평을 얻었다. 또 드론 등 신기술을 접목해 차

질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희 도 토지관리과장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와 도민 눈높이에 맞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로 하는 지적기반 공간정보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도민 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구기자

모든 것을 새롭게
All New 하이트

대한민국 No.1 셀링 비어
80년 맥주 제조 노하우
EXTRA DRINKABILITY
CHEERS! KOREA

희망나눔캠페인 순회모금 행사 성황리 마쳐

부여군, 2억7천2백만원 모금... 전년대비1억2천9백만원 증가

부여군은 지난 12월 13일 오후 여성 문화회관에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로 '희망2019 나눔캠페인 순회모금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행사는 부여군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각급 기관, 단체, 기업체 및 지역 주민 300여명이 참여해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박정현 부여군수는 부여군 산하 공무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성금(21백여 만원)을 대표로 기탁하며 '추운 날씨만큼이나 공공인 경제 상황에도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유병기 충청남도의회 전 의장이 아너소사이터티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1억1천만원을 완납, 부여군 10번째(충남82호) 아너가 되었다고 지난 10월 박정현 부여군수를 비롯 송복섭 의장 및 부여군 의원 11명이 전원(송복섭, 정태영, 이원복, 윤택영, 유기주, 이대현, 진광식, 박상우, 노승호, 민병희, 김상희) 나눔리더로 가입하면서 부여군의 나눔리더로 자리매김 했다.

또한 고란사(대한불교조계종)가 나눔리더클럽에 가입하면서 500만원을 기탁, 나눔리더 5명(김달호, 송기선, 김종원, 김미선, 한상익)이 가입․인증패를 전달 받았으며, 충남1호 아너인 혜성

당한약방 이훈구 원장 3백만원, 형남순 아너 2천만원, 김영근아너 2천만원, 정필옥 나눔리더 1백만원, 김미선 나눔리더 1백만원, 한상의 나눔리더 1백만원, 부여군 비정규직 지회에서 1백40만원, 부여읍 새마을부녀회 1백만원, 은산면 남·여 새마을지도자 1백만원, 규암면 남·여 새마을 지도자 2백만원, 새마을운동 부여군지회에서 제64회 백제문화제 저자거리 '백제법상' 운영 수익금 2백만원, 건양기술평가건축사무소에서 5백만원을 기탁 하면서 성금전달식을 가졌다.

이 외에도 각급 기관, 단체, 기업체, 개인 및 부여읍 세쌍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정성껏 모은 사랑의 저금통을 전달하였

고 이렇게 당일 모아진 성금은 2억7279만8900원이라고 전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전달 받았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모금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더 많은 대상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성금모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희망2019 나눔캠페인"모금은 내년 1월말까지 계속되며 지로 및 계좌입금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모금된 성금은 부여군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월동난방비 등으로 사용된다.

'ACE+협의회 공동 성과확산 심포지엄' 열려

선문대, 성과 공유·우수프로그램 확산하고자 마련

서부권역의 '잘 가르치는 대학' 10개 대학이 모여 교육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한다.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는 ACE+협의회 서부권역 10개 대학 공동 성과확산 심포지엄을 오는 18일 선문대 원화관 아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선문대를 비롯한 10개 대학이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프로그램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ACE+협의회 서부권역 10개 대학(중신대학교, 배재대학교, 선문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우송대학교, 전북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 공동 주최하고 선문대 ACE+사업단장 김종해가 주관한다.

김진숙 실장(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미래사회 대응 고등교육의 혁신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 이후 각 대학의

우수 프로그램 30개가 6개 세션으로 나누어 발표된다. 6개 세션은 ACE+사업의 핵심 영역인 교양 교육과정, 전공 교육과정, 비교과 교육과정, 학사제도 개선 및 학생지도 내실화, 교수-학습 지원 체계 개선,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개선 등으로 세션 별로 우수 사례를 발표한다.

선문대 김종해 ACE+사업단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대학들의 성과를 확산하고 대학 간 협력과 공유로 대학의 발전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하는 10개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ACE+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수행해 온 대학들이다. 선문대는 2016년 ACE+사업에 선정되면서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 생애설계를 통해 나만의 Story를 찾고 만들면서 '달로벌 서번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목표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산=리량주기자

사과·배 적과전종합위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청양군, 오는 12월 21일까지 지역농협 통해 가입신청 받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증가 아산시, 전년대비 11.4%

아산시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의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년대비 11.4%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전해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보험금은 정부 50%, 도비 9%, 시비 21%로서 농업인은 20%를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이 가능한 품목이 있는가 하면, 불가능한 품목도 있어 지역농협에 문의 후 가입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더 많은 농민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의 개정도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21일까지 사과, 배, 단감, 뽕은감 등 과수 4개 품목에 대한 적과전(摘果前) 종합위험보장방식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

종합위험보장방식의 과수 농작물재해보험은 특정 위험보장방식의 보험과 다르게 적과종료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과실손해와 적과종료 이후 태풍, 우박, 집중호우, 일조피해 및 가을

동상해로 인한 과실손해를 기본(보통약관)으로 보장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이상저온현상으로 사과, 배 등 과수 낙과피해 규모가 65ha에 달했는데 특정위험보장방식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중 봄동상해를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이상저온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종합위험보장방식의 보험에 가입하면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피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청양군은 가입보험료의 90%를 보조하고 있어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만 군 농업지원과장은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관내 과수농가들이 큰 피해를 봤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보험금을 받아 빠르게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면서 "오는 12월 21일 가입신청이 마감되므로 과수 농가들이 서둘러 종합위험보장방식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서천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 13일 체무과 징수팀과 지역경제과 차량관리팀이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섰다.

서천군의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5억3천1백만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17억6백만 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군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서천군 관내 차량, 4회 이상 체납된 징수촉탁 관외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영치활동을 전개해 관내 차량 5대의 번호판과 관외(축박부) 차량 3대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현장에서 4백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지난해에도 서천군은 매주 수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설정하고 새벽번호판 영치, 읍·면 합동 영치, 유관기관 합동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해 관내 차량 191대의 번호판 영치, 1억2천9백만 원 징수 및 관외(축박부) 체납차량 51대의 번호판 영치, 2천3백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김인수 체무과장은 "번호판 영치와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우송정보대학-우송대 대전·세종지역 우수 기업 산학협력 협약 체결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과 우송대학교(총장 존 엔디컷)는 12월 14일 대전·세종지역 우수기업 18개 기업과 가작기업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MOU를 체결한 우송정보대학·우송대학교와 각 가족기업들은 ▲지역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구인구직 정보제공·현장실습 및 취업 관련 사항 ▲사회맞춤형 전문인력 공

동양성 등에 협의하고 함께 상호 간에 상생 발전과 우수인재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우송정보대학 정상직 총장을 비롯하여 우송대학교 이창조 산학협력단장과 관련학과 교수들 그리고 가족기업에서는 양희준 세종첨단산업단지기업인회장, 박원하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총괄이사, 조성대 대덕3,4관리공단본부 전무이사, 손찬웅 대전정

제통신진흥원 부장 등 지역 산학협력기관 대표가 참석하였고, 또한 케이엠넷, 대국건설산업(주), 백제컨트리클럽, 성광유니텍, ㈜원탑PI, 파트너스, 미래나노텍(주) 등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기계, 전기, 전자, 통신, 호텔, 스마트경영분야 등을 생산하는 우수기업들의 대표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김정환기자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 특 정 •

읍면지역 교육발전협의회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17일 오후 5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다목적강당에서 열리는 「읍면지역 교육발전협의회 회의」에 참석.

세종시 한솔동장·도담동장 주인이 직접 뽑은 첫 동장 탄생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한솔동장과 도담동장이 주민의 손으로 선출됐다. 한솔동장 추천 주민심의위원회와 도담동장 추천 주민심의위원회는 12일과 13일 각각 위원회를 열어 한솔동장에는 김은희 사무관, 도담동장에는 홍영숙 사무관을 추천했다.

동장 후보로 나선 공직자들은 각각 위원회에서 동(洞)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폐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심사와 평가에 참여했다. 주민 면접 및 심사결과에 따라 한솔동은 김은희 사무관, 도담동은 홍영숙 사무관이 최고 득표를 획득하여 추천 받았으며, 추천 결과는 곧바로 인사부서로 통보되어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동장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서산의료원서 서울대병원 의사가 진료

충남도, 서울대병원·서산의료원·서산태안 국회의원·한국서부발전과 협약

충남도가 운영 중인 서산의료원이 국내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의료진을 파견 받아 도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서울대병원의 선진 의료정보 시스템도 '이식' 받아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협력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과 한국서부발전의 '상생협력기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서울대 병원 의료인력 파견 및 공공의료 사업 지원 △중환자실 원격진료(tele-ICU) 구축 협력 등 서산의료원 중증환자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이 다.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신경과 등 3명의 의사를 파견 받아 환자 진료에 투입한다. 이어 내년 9월 의료원 복합병동 신축을 완료하면, 서울대병원의 지원을 받아 Tele-ICU와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 조영실을 설치한다.

"이번 협약은 서산의료원이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의료원은 1만 785㎡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17개과 242병상 규모로, 의사 25명 등 282명의 인력이 근무 중이다. 지난해 30만 1145명의 환자가 진료료를 받았다.

충남 청년네트워크 통합워크숍 개최

충남 청년참여 플랫폼 만들기 나서

충남도가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는 15일 덕산리소스캐슬에서 양승조 도지사를 비롯한 청년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충남청년네트워크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러 행사는 친교 형성을 위한 레크리에이션과 전형민 의왕시 청년네트워크 대표, 강보배 전국청년 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의 네트워크 운영사례 소개 및 특강, 네트워크 운영방향에 대한 토의와 발표 및 소감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새롭게 구성된 충남청년네트워크의 향후 운영방향을 직접 고민했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시군 순회 워크숍 개최에서 세부 운영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서트를 통한 청년과의 소통과 공감이었다"면서 "고령화·저출산·사회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의 해법을 청년과 함께 찾아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도는 그동안 '청년이 충남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인식으로,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비롯해 청년 정책위 구성 및 청년정책팀 등을 신설했다.

재난 현장 '드론 생중계' 시스템구축

완료보고회 개최...내년 초 시범운영 후 본격 투입

충남도가 각종 재난 현장 영상을 드론으로 촬영, 도 상황실 등에 실시간 전달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도는 1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정석완 도 국토교통국장과 관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 구축 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대형사고, 구급 상황 △산불 △대기·수질오염 등이다. 도는 내년 초 시스템에 대한 시범 운영을 진행 한 뒤, 각종 현장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시스템이 △현장 중심의 선제적 위기관리대응 체계를 통한 도민 생명·재산 보호 △신속·정확한 현장 대응력 확보 및 의사 결정 지원 △유관 부서 및 시·군 공동 활용을 통한 협업 행정 성공 모델 제시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평가 세종시 우수 자치단체 선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평가에서 우수 공역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15개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됐고, 공역 시도에서는 충남·전남·경기도, 특·광역시에서는 세종시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사)장애인연합회 취약계층 장애인 지원 일일찾집 운영



(사)장애인연합회가 지난 13일 예산군청 1층 카페 'Yes-angel'에서 취약계층 장애인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일일찾집을 열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후원자 등 약 400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룬 이번 일일찾집은 커피, 차, 먹거리 판매뿐만 아니라 하모니카, 합창단 공연, 밴드 공연, 작품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행사에 인기를 더했다.

변의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황영진 장애인연합회장은 "취약계층 장애인 지원을 위한 행사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개소한 카페 'Yes-angel'은 예산군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 중이며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042)538-3030, www.daejeontoday.com

2018년 아이돌봄지원사업 평가

예산군 우수등급 'A등급' 받아

예산군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이무희)는 2018년 아이돌봄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전국 222개 아이돌봄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통합 업무관리시스템의 정량평가와 사업수행 기여도 등 정성평가로 이뤄져 2018년 동안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평가 세부 항목은 △서비스 성과(만족도) 20점 △서비스 제공(실적, 안전관리) 29점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및 활동 참여 33점 △서비스 제공 인프라 18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성과를 측정했다. 군은 전국단위 농촌 79개소를 A, B, C등급으로 평가한 가운데 A등급을 받아 돌봄사업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질 측면에서 합격점

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시설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의 시간제 돌봄과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의 종일제 돌봄으로 구분되며 이용료는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과 본인 부담 이용료가 있다.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enfiren advertisement featuring a woman playing a ball on a field, with text '가장 자연스럽게 달리는 기술' and 'enfiren 알프스 효과관?'. Includes a Goodyear logo at the bottom right.

등정

간부회의



오세현 아산시장 = 17일 오전 8시 30분 상황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

치매인심센터 개소식



김홍장 당진시장 = 17일 오전 10시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12월 중 지역 총회협의회를 주재.

주간업무계획보고회



김동곤 청양군수 = 17일 오전 8시 30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주간업무계획보고회를 주재.



영인면 12월 이장회의 열려

아산시 영인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이정희)는 지난 13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33개 마을 이장과 시의원, 여러 기관·단체장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 11월 30일자 인사발령으로 영인면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의 소개를 시작으로 ▲2019년 적십자회비 모금 ▲영인면민의 날 제정위원회 창립총회 결과 ▲희망 2019 나눔캠페인 이웃사랑 성금모금 ▲2019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계획 ▲상수도 급수공사 일시중지 ▲2018년산 비 보급증 신청 등 면정 홍보 사항 전달, 이장회의의 질제 안전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계획과 관련된 많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정희 면장은 "귀중한 시간을 내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이장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추운 날씨에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주의하실 것과 발급된 문화누리카드와 이미용권을 연내에 잘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Daejeon Today (대전투데이) advertisement with logo and contact info (042)538-3030.

민선7기 첫 본예산 4016억원 확정

청양군,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도내 최초 1000만원 넘어

청양군(군수 김돈곤)의 내년도 예산안 4016억원이 지난 14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117%인 419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개군 이래 처음으로 4000억대 실패살이를 꾸리게 됐다.

회계별로 확정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3436억원(207억원 증가) ▲특별회계 111억원(61억원 증가) ▲기금 469억원(151억원 증가)이다.

주요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일반회계 기준)은 1071만원('18년 983만원)으로

도내 최초로 1000만원을 넘어섰다. 재정자립도는 9.2%로 지난해 11.5%보다 2.3% 감소했다. 군에 따르면 자체수입인 재산매각수입 50억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김돈곤 군수의 도·중앙부처 인맥 활용으로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벌인 결과 지방교부세, 국비 등 의존재원에서 242억원이 크게 증가했다.

내년도 확정된 주요 투자사업은 ▲철강산 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사업 74억원 ▲청양읍·장평면·남양면·화성면 농촌종합개발사업 78억원 ▲남양, 정산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7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지천, 미당천, 농소천) 81억원 ▲형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도로정비사업 52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40억원 ▲스포츠마케팅 23억원 등이다.

또한 일자리사업 예산에서는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31억원→43억원) ▲청년일자리사업(4억5000만원→10억원) 등에서 대폭 증액 확정됐다.

이 밖에도 ▲백세공원 바닥부수 설치 2억5000만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2억원 ▲서민증가

스타이머록 설치지원 1억원 ▲농작업 지원단 수확 및 운송작업단 운영 2억4000천만원 ▲보건의료원 전문의(3명) 채용 5억7000만원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 20억원 ▲소규모 농민가공센터 구축 13억6000만원 등 주민 밀착형 사업도 최종 확정됐다.

군 관계자는 "내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해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세부사업계획 수립 등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성범 기자

우리/동/네



지역인재 양성 시민·기업 모두 한뜻

당진장학회 올해 기탁금 총 6억 6,350만원

충남 당진에서 올 한 해 동안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는 시민과 기업들이 줄을 이으며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제)당진장학회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롯데주류가 당진사랑 장학금 1200만 원을 기탁했으며, 4월 3일에는 현대제철이 5억 원의 장학금을 쾌척했다.

이후 7월에는 일신 회계법인이 1000만 원을 기탁했으며, 11월 22일에는 한국동서발전(주)당진화력본부도 1억 원을 기탁했다.

이달에 들어서도 지난 12일 삼호개발(주)와 당서 아스콘(주)가 함께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쾌척한데 이어 당진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당진 청소년 체육 지원단이 각각 50만 원과 100만 원의 장학금을 당진장학회에 전달했으며, 13일에는 ㈜신석개발이 1000만 원을 전달할 예정인 해 동안 총 6억 6,350만 원의 장학금이 모였다.

당진장학회는 올 한 해 345명의 학생들에게 4억 9,7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기탁자의 뜻에 따라 보다 다양한 장학 혜택을 마련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재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능력을 펼쳐 지역의 동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 한 해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베트남 달랏시와 우호협력

13~17일 태안군 공식대표단 베트남 달랏시 초청방문

태안군이 베트남 달랏시와 우호협력관계 의향서를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실시한다.

군은 지난 14일 베트남 달랏시청에서 가세토 군수 및 군 관계자, 달랏시장 돈 띠엔 썬(Mr. Ton Thien San) 인민위원회위원장·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 달랏시 간 우호협력관계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향서 내용에 따르면 태안군과 달랏시는 상호신뢰와 호혜평등을 기초로 경제·도시건설·관광·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교류를 강화해 실질적 경제무역교류로 양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방문은 베트남 달랏시의 초청으로 13~17일까지 진행됐으며, 태안군 공식대표단은 달랏시의 주요시설인 플라워파크와 자수 박물관 등을 방문하고 커피농장, 수경재배농장, 와인생산시설 등 주요산업 현장을 시찰하며 양 도시 간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가세토 군수는 "베트남 달랏시는 관광과 회색산업 등 태안과 유사한 점이 많아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협력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달랏시는 약 400㎢ 면적에 20만 6천여 명이 살고 있으며, 소나무 숲으로 유명한 스언호영 호수, 죽림사원 등 다수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해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 관광지이며 베트남 신흥여행지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12월에 열리는 꽃 축제 등이 유명하며 주요산업으로는 화훼류, 고구마 등의 농업이 발달했으며 베트남 커피의 50%를 생산하고 있다.

태안=김정환기자

운곡면 올해 마무리하는 이장회의

청양군 운곡면면장 조용근은 지난 12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이장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2018년 이장협의회 활동 결산을 시작으로 ▲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2018년 2분기 정기분 자동차세 홍보를 비롯해 각종 면정에 대한 홍보도 진행됐다.

특히 면은 이번 겨울은 혹한이 예상되는 만큼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자연재난 상황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조용근 면장은 "올해 여름에 폭염으로 고생 많으셨다"며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기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면정에 협조를 하는 이장협의회에 감사사를 표했다.

운곡면 이장협의회는 이번 겨울은 폭설과 혹한이 예상되는 만큼 마을별 시설반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시설작업을 다짐했다.

끝으로 우리 군의 존립근거인 인구유치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한 인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회의를 마쳤다.

청양=정성범기자

"당진의 희망 온도를 높여주세요"

지난 14일 개막식을 갖고 희망나눔 캠페인 본격 돌입



당진시가 지난 14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희망2019나눔 캠페인 개막식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집중모금에 본격 돌입했다. 당진시의 이번 나눔 캠페인은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당진시 복지재단과 함께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2019년 1월 31일까지 73일 간 계속될 예정으로, 개막식에 앞서 시는 김홍장 당진시장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

지난 14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지난해 모금 유공자 표창과 당진 지역 기관·단체장들의 사랑 나눔 메시지가 이어졌다. 특히 성금 전달식에서는 기업인과 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연령대

의 당진시민들이 성금을 기부하며 희망의 온도를 높였다.

개막식에는 할애하지 못했지만 집중모금 기간 동안 기부에 동참하고 싶은 당진시민은 시청 민원실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모금함에 직접 기부하거나 통화 1건 당 3000원이 자동 모금되는 ARS 전화(060-700-0130) 또는 충남도 모금회의 당진시, 당진 복지재단 전용계좌(농협 408-01-087718, 예금주 충남도 모금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할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2019 희망 나눔 캠페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당진 시청 사회복지과(041-350-3664) 또는 당진시 복지재단 복지사업팀(041-360-3004)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배방읍 공수·복수일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아산시에 따르면 배방읍 공수리, 복수리 일원이 상습침수지역으로 2017년, 2018년 집중호우 시 도로 및 주택침수가 발생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대별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2018년 9월 10일 환

경부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해, 11월에 환경부 및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장실사 등 12월 4일 환경부에서 중점관리지역 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전국 신청지 36개 지구 중 아산시를 포함 12개 지구가 12월 12일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 공

고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813백만 원(국비 70%, 시비 30%)을 투입해 배방읍 공수리, 복수리 일원에 관로 11.2km, 빗물받이 524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0년에 착공하여 2023년에 준공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종합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되면 집중호우시 공수리, 복수리 등 침수에 방호과를 거둘 수 있다"며,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농업보조 지원사업 일제 점검 추진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농업보조 지원사업의 중복지원에 및 사후관리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군·읍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농업보조금이 지원된 사후관리대상 시설·장비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관련부서에서 사후관리 대상 시설(10년·장비(5년)가 해당한다. 점검결과 확인된 목적의 사용, 승인 없이 무단으로 매매·대여·양도·담보 제공

등 위반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회수 등 행정조치와 범죄사실을 병행 처리해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보조금사업의 준수 및 처벌사

항을 안내하고 위법한 사항은 조치해 농업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에 철저하게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을 예방하고, 관리대상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병행 시행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아산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간담회 열려



로 83~14 회의실에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아산시청 경로장애인회,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아산시 두리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좋은주간보호센터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하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시설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업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참석자들은 시설 이용 대기기간 감축, 이용기간 이후 주간활동서비스와의 연계 방안 등 발달장애인들에게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이용자들의 행태 관찰을 통한 욕구 파악 및 스트레스 해소 방안 및 사고 예방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전병관 경로장애인회장은 "이번 2년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 시설을 개소로 확충하는 등 외연 확대에 힘써 왔으나 각 시설간의 협업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례 회의를 개최하여 시설 간 정보 교류 및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13일, 좋은주간보호센터(배방읍 복수

우리/동네

논산시장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 선정



스카이워크로 한층 더해진 '낭만'

신성리갈대밭, 금강과 갈대 등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어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신성리갈대밭이 최근 잔잔히 흐르는 금강의 물줄기와 황금빛 갈대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 설치에 완료됨에 따라 겨울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4대 갈대밭으로 금강하구 둔치에 드넓게 펼쳐진 갈대밭을 자랑하는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갈대밭은 스카이워크 설치로 낭만이 한층 더해져 운치 넘치는 겨울 풍경을 선사해 화제다. 올해 14억 원의 예산으로 설치된 신성리갈대밭 스카이워크는 길이 20m, 폭 2m로, 스카이워크 위를 걸으면 눈 아래 일렁이는 황금빛 갈대와 겨울철새, 거기에 금강 물결까지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한산면 주민 김 모 씨는 "서천군의 대표 관광지이자 우리 마을 자랑거리인 신성리갈대밭이 더욱 멋있게 변신했다. 최근 눈이 내리 새하얗게 뒤덮인 스카이워크와 갈대밭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았다"며 극찬했다. 한편, 서천군은 신성리갈대밭에 내년 19억 원을 투입해 핑크브릿지 조성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연이은 신성리갈대밭의 변신 소식에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논산시 연무시외버스정류장 '개통'

적극 행정 통한 성과. 지역민에 편의 제공 최우선으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연무시외버스 정류장이 이전 개통을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승객 맞이에 나섰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13일 연무시외버스 정류장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한 각계인사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축사 등 공식행사 및 축하테이프 컷팅 순으로 진행됐다. 시와 읍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연무시외버스 정류장은 그동안 토지매입 문제 등의 사유로 정류장 이전 개통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 초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토지사용 승낙과 예산을 확보해 8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게 됐다. 이번 연무시외버스 정류장 공사는 시비 4억 1천3백만원과 국비 3억원, 총 7억 1천3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으며 1층 건물(84㎡)에 대합실, 화장실, 무인발권기 등 편의시설을 구비해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민원발급기 교체 설치 큰 '호응'

서천군, 24시간 운영하는 외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군민들과 방문객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서천군청 민원실과 장항읍·서면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 오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약 10여년 만에 교체 설치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항읍행정복지센터와 서면행정복지센터에 새롭게 교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 중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이용이 가능해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인식만으로 주민등록, 토지, 병적증명,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80여 종의 각종 민원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 수수료가 50% 할인돼 직원이 발급하는 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또,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도 민원서류발급이 가능한 것은 물론 한 장소에서 여러 종류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용하는 군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면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가 외부에 없어 낡았때 이용객의 신분증 내용의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지 못해 민원 불편이 있었으나 외부로 설치장소를 이동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천=김태선기자

공원 녹지 산림 환경 거버넌스 강화 등 녹색환경 구현 이바지한 공 높이 평가

황명선 논산시장이 시민건강과 녹색환경 구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황명선 논산시장이 14일 (사)산림환경포럼·산림청이 주관하고 후원하는 제14회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 자치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은 산림의 환경기능 향상에 공헌한 인물을 찾아 사기를 높이고 산림환경 보존의식 고취를 위해 입법·자치·연구·교육·정책·행정·단체·임업 등 8개 부문으로 시상하고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미래성장 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하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사업·휴양기능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삼기 좋은 논산만들기를 선도, 특히 공원 녹지 산림 환경 거버넌스 강화 등 시민의 건강과 녹색환경 구현에 이바지한 공을 높이 평가받았다. 황 시장은 조림사업으로 불량임목을 갱신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와 숲가꾸기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적 사방사업 확대 및 유지관리를 통한 산림재해

예방 및 국토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도심속 녹색공간인 논산시민공원(135.138㎡)은 벽천폭포, 거울연못,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나무(42,838본), 초화류(60,000본)를 식재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의휴게공간이자 중부권 최고의 공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둔산 철쭉단지에는 철쭉 식재 노석(191500본), 탐방로, 편의의자, 데크로드, 백철쭉으로 만든 한반도 모형과 편의휴게시설을 갖춘 오토캠핑장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양촌자연휴양림에는 통나무집, 하늘승라이드, 등산로 등을 조성해 전국

도 증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최우수기관 선정

부여군, 올해 7억9300만원 구매 337% 증가

부여군이 도내에서 실시한 증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충남도는 지난 1~11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8년 증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평가해 부여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여군은 도내에서 실시한 증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평가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오는 31일 열리는 총무실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한다.부여군청 및 산하기관, 읍·면 등 전부서에서는 법정의무구매율(1%) 달성을 위해 건부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구매실적 관리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증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연계해 필요시 방문상담을 통한 제품의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등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11월말 기준 부여군 총 물품구매 금액은 315억 4400만원이

계룡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충남 계룡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적단체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 ▲세계측지계 변형실적 ▲홍보실적 ▲수법사례 ▲제도개선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5지구 54만㎡의 재조사사업 추진, 재조사 확대(당초 3,001필지→8,057필지), 맞춤형 재조사 안내판 제작, 일정별 문자발송 등을 활용한 홍보방법의 다양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자체 최초로 무인항공기 재조사 지역 촬영구축, 충남 대표로 '토지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는 주제로 제도 개선 사항 발표, 계룡시 사례가 국토교통부 재조사 매뉴얼에 편제되는 등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계룡시는 올해 두계1지구 161필지 6만9천44㎡, 유동1지구 179필지 14만2천㎡ 등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입암1지구 96필지, 12만3천㎡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고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지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최홍훈 계룡시장은 재조사 업무를 선제적으로 추진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인 협조

"건강진단결과서, 아직도 보건소에서 발급 받으시나요?"

부여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기관 확대로 주민편의 향상

부여군은 오는 12월 19일부터 건복지부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검진과서(구 보건증) 발급을 확대 시행한다. 식품·유제품,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소에서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가능하던 보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고, 지자체별로 절차가 상이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19일부터는 전국 어느 보건기관에서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 발급 사이트 '공공보건포털'에서만 발급하던 건강진단결과서를 '정부24'에서도 무료로 발급(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다수의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부여=김성규기자

천안시민이 직접 선정하는 10대 뉴스에 투표하세요

'니를 즐겁게 하는 행복한 변화' 시민공감하는 주요정책 선정 예정

시는 투표를 거쳐 가장 표를 많이 받은 '2018 천안의 10대 뉴스'를 선정,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후보에 오른 20개 정책은 ▲12개 시군 협력체 건설촉구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중부권 동서충안철도 건설사업'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민선7기 시장 돌입' ▲국도비 135억원을 확보한 천안의 새로운 랜드마크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남부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서민, 신혼부부, 청년 주거복지 실현 등 '행복주택 공급'이다. 김진철 정책기획과장은 "올해도 천안시는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며 "시민과 함께한 많은 일 중 공감하는 사업에 투표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참여로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만들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111만만의 '폭염 대책 대응' ▲충남 유일 '영여특화 청수도시'인 개관 ▲전국 '최다 공동육아 나눔터운영' ▲세계 속의 천안, '국제기능기자재박람회와 흥타령축재 개최' ▲술선시법, 주민참여로 5만여 라돈집대를 수거·해체

등 정

최종보고회



구본영 천안시장은 17일(월) 오전 10시 30분 시청 1층 로비에서 민선 7기 분야별 핵심시책과 시민 체감지표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4시 30분 상황실에서 개최되는 시·군·구 지이전 발전전략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

업무 협약식



노박래 서천군수는 17일 오후 2시 문예의전당에서 열리는 희망 219 나눔 캠페인 서천군순회모금에 참석, 오후 4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서천사랑장학회 총회에 참석, 오후 5시 군청 상황실에서 진행되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 업무 협약식에 참석.

천안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입시 휴장'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원식)은 천안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을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입시 휴장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천안시의 대표 수영장으로 하루 평균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해 수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시 휴장 기간 청결한 수질관리를 위한 여과시설·장비 교체 공사를 진행해 더욱 쾌적한 환경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정기휴일과 이용객이 적은 시기를 고려해 결정했으며, 야간작업을 실시해 신속히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한다. 천안=기병기자



베스트 숙박·세탁·목욕업소5곳 선정 계룡시,선정업소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충남 계룡시는 지역 내 숙박, 세탁, 목욕업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베스트업소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매년 분야별 평가대상을 선정해 법적 준수 사항은 물론 고객 안정성과 서비스 질 등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숙박, 세탁, 목욕업소 4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공중위생 담당 공무원과 명예 공중 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업소를 방문해 법적 준수사항, 시설환경, 고객안전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 평가했다. 평가결과 14개소(숙박업 9, 세탁업 2, 목욕업 3)가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최우수업소(녹색등급)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5개소를 베스트업소로 선정했다. 시는 이번 선정된 5개소에 베스트업소로 표지판을 부착하고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 지원, 업소 집기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관리와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시민건강과 깨끗한 공중위생 환경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정된 베스트업소는 ▲숙박업-호텔리어, 호텔본 ▲목욕업-계룡복지센터 ▲세탁업-삼성세탁소, 29형프리리빙이다.

동정

제2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김정섭 공주시장은 17일 오전 10시 본회의실에서 제2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참석.

주간 현안 보고



김동일 보령시장 = 17일 오전 8시 2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주간현안 보고,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제4회 기부심사위원회, 오후 3시 3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만세보령문화제 결산보고회, 오후 6시 웨스토피아에서 열리는 보령 예술인대회 참석.

중국위해시방문



맹정호 서산시장 = 17일 서산 대신항 포드세일즈를 위해 중국위해시 방문.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처리 서산시 최우수기관 선정



서산시가 충남도에서 실시한 '2018 슬레이트 처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2018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 평가는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도시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을 적극 추진해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한 시·군 선정을 위한 평가이다.

서산시는 석면에 의한 피해 예방과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연계 추진했으며, 총 5억원을 투입해 슬레이트처리사업 118동, 농어촌빈집정비사업 102동을 처리해 위해요소 제거 및 경관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충남도 15개 시군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이 들어 철거를 꺼려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빈집을 우선 정비하고 철거 후 건축물대장과 지방세 과세대장을 일괄로 정리해 주는 등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호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노후주택 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저출산 인식개선 아동극 공연 실시

서산시, 관내 어린이대상...가족의 소중한 일깨워주는 시간 가져

서산시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으로 저출산 인식개선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시는 관내 어린이집 29개소 1,30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족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산문화회관에서 저출산 인식개선 아동극 공연을 실시했다.

이번에 공연된 아동극 '아빠의 낡은 장난감은 대가족 집안에서 자란 아빠와 핵가족 집안에서 자란 아이가

장난감을 매개로 서로의 삶을 체험하게 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가족애를 일깨워 주는 시간이 되었다.

서산시는 지난 9월부터 학생 및 초·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교육, 연극, 캠페인 및 가족사랑대회를 운영하는 등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가족

의 소중함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연극,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통해 저출산 인



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령시, 내년부터 4년 간 복지정책 확정... 교육·고용·문화·환경 등 사회보장영역 구체화

보령시는 14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3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 회의 및 제4기 보장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오는 2022년까지 적용될 세부 복지정책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일 보령시장 (공공위원장)과 명성철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협의체 대표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경과 및 추진 목표, 전략과제, 세부추

진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동안 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400여대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실시했으며, 민관합동 TF팀 구성 및 회의의 개최, 기관·단체·시설·법인 등의 종사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표적집단지면조사(FGI) 실시, 담당공무원 간담회, 실무분과 회의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결정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든든한 보령, 행복한

시민'을 슬로건으로 자유롭게 성장하는 미래세대 육성 지원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환경 조성 ▲누구나 누리는 보령시민형 복지환경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도모 ▲여성·가족 진화도시 조성 등 5대 추진전략과 21개 세부사업으로 확정됐다.

특히, 제3기 계획과 달리 기존의 복지·보건 분야는 물론, 교육·고용·문화·환경 등 사회보장영역을 구체화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오는 2022년까지 보령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준 모든 분들께 고맙다"며 "민선7기의 시정 운영과 발맞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돼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도시 보령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 기자



2019 SNS 서포터즈 발대식 가져

세계유산도시 공주 홍보대사 역할 수행

공주시가 소셜네트워커서비스(이하 SNS)를 통해 세계유산도시 공주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지역 소식을 전할 2019 공주시 SNS 서포터즈 40명을 위촉했다.

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정섭 시장과 관계 공무원, SNS 서포터즈 등이 모인 가운데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날 위촉된 서포터즈는 지난 11월 신청과 서류심사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대부터 60대까지 학생, 주부, 여행 작가 등 다양한 연령과 직종으로 구성됐다.

이들 서포터즈는 앞으로 1년간 공주시 곳곳을 발로 뛰고 사진으로 기록하고 글로 새겨어 공주의 맛과 멋, 축제,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매력을 찾아 콘텐츠로 발굴하고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시정소식을 실시간으로 취재해 전파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 왕성한 활동이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는 대학생 서포터즈(15명)를 처음 위촉하였고 대학생의 특색 있는 아이디어와 창의성으로 공주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공주시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부여 추진

시민 생활 불편 해소·안전 확보...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시민 생활의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상세주소란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동·층·호 표기를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적용해 '000호' 형태의 주소를 부여하는 것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주소를 법정동

주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상세주소 신청은 원래 건물 소유자의 신청이나 임차인이 직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했지만 2017년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하고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과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통해 건물 내 동·

층·호 별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이나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 수취가 가능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등 주민 생활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시 토지와 지적조사팀 이민희 담당은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는 꼭 필요한 제도에 만큼 2019년에는 상세주소 부여율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직권부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우리/동네

금산농기센터 농기계 안전교육 실시

농업인들 경영비 절감 도움



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13일 여성농업인, 귀농·귀촌인, 신규 농기계 구입 농업인 등 15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이론 및 실습교육 등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로교통관리공단이형규 교수의 농기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과 함께 충남농업기술원 역량개발과 장순우 농기계교육과가 운영하는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후에는 농업인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농용굴삭기, 자주식 퇴비살포기 실습 및 이송시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파이프밴딩기 등 농기계의 사용법 및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이용기술에 대한 현장 실습교육도 병행했다.

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현재 65종 510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다이용 농업인의 수가 늘어나 연 2,500여 명이 이용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은 고가의 농기계를 부담하는 비용 절감 및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 등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임대농기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 ☎041-750-3544로 문의하면 된다.

금산=주연기기자

보령시, 내년도 농업인실용교육 일정 확정

영농방향·새해영농설계 지원

보령시는 14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읍면동 산업 담당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농업인 실용교육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통해 내년도 농업인 실용교육은 오는 1월 8일부터 30일까지 모두 7개 과정, 18회에 걸쳐 모두 3200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의 안전을 위해 전 교육 과정에 제도 안내를 반영하고, 농업여건변화에 대응할 영농방향과 새해영농설계를 지원한다.

또 친환경·신개방 농업기술 안내와 귀농귀촌 및 청년 농업인반을 개설해 새내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데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강상희 농업지원과장은 "PLS제도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 농산물을 차단하는 물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서는 영농기술 및 전반적인 역량을 높이며 PLS의 완전 정착을 위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촌진흥청 제19조에 따라 지난 1969년 겨울 농민교육으로 시작돼 2010년부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으로 명칭이 변경돼 추진해왔으며, 농정방향, 기술보급, 농업재해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한해 농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보령=김태성기자



새마을운동보령시지회

사랑의 쌀 1만20Kg 전달

보령시는 14일 오전 시청 광장에서 김동일 시장과 양원수 새마을운동보령시지회장,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16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 새마을문고, 청년봉사대를 통해 모은 쌀 1만20kg를 10kg씩

1020포로 분류해 독거어르신 및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등 1020세대에 각 1포씩 전달했다.

양원수 지회장은 "이번 쌀 나누기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잠시나마 따스한 정을 느끼고 훈훈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 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 강남스캔들 (SBS 오전 8시 20분)



“개가 무슨 자격으로” 방은희, 신고은 취직 소식에 분노?!
점점 가까워지는 소유와 서준이 불안한 세련, 금희에게 살갑게 대하는 서준을 본 소유. 이전에도 서준이 금희를 병원에 데려가 준 걸 알게되며 점점 서준이 탐미 보이기 시작하는데...

▲ 차달래 부인의 사랑 (KBS2 오전 9시0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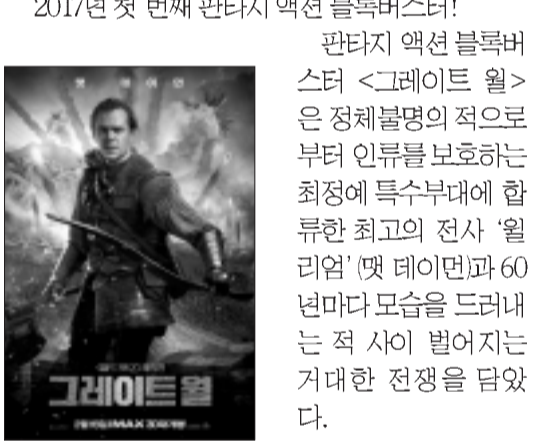
복남이 차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달숙은 그 충격

케이블 영화

▲ 그레이트 월 (OCN 오후 2시20분)

60년에 한번, 8월 동안 인류의 운명을 건 전쟁이 시작된다!
인류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찾아 미지의 땅으로 떠난 최고의 전사 '월리엄' (맷 데이먼)과 '페로' (페드로 파스칼)는 60년마다 존재를 드러내는 적에게 공격을 당해 동료들을 잃게 되고, 이 정체 불명의 적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네임리스 오더'와 마주하게 된다.

한편, 세상을 지키는 유일한 장벽, '그레이트 월'까지 놔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자, 월리엄과 페로는 인류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네임리스 오더에 합류하고,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거대한 스케일과 파워풀한 액션에 세계가 주목한다



케이블 & 위성방송

Table with 4 columns: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으로 해외 공연 일정을 취소한다. 무리한 연습으로 목에 이상이 온 현정 대신 미래는 다시 공연연습에 들어가고 차용증을 뒀 송주의 압박에 견디다 못한 준호는 학원을 그만두라고 동원을 다그치는데...

▲ 나쁜형사 (MBC 오후 10시00분)



[근면한 악의 부활] 줄곧 의식불명이었던 형민의 부활! 경찰관을 노리는 연쇄 살인 사건 범인의 도심 한복판 폭탄 테러 예고까지! 혼란에 빠진 태석의 선택은?

▲ 부러더 (채널CGV 오후 3시20분)



가보도 팔아먹는 형 VS 집안도 팔아먹는 동생, 제대로 사고 쳤다!

인디어나 존스를 꿈꾸며 유물발굴에 전 재산을 올인 하지만 현실은 늘어나는 빚과 쓸모 없는 장비뿐인 형 석봉(마동석)

가문을 대표하는 눈부신 외모와 명석한 두뇌로 잘 나가는 건설 회사에 다니지만 순간의 실수로 실직 위기에 처한 동생 주봉(이동휘)

3년 만에 분가로 강제소환? 당한 형제는 사고로 오로라이더를 치게 된다. 이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로라이더의 말에 혹한 석봉과 주봉에게 지긋지긋한 안동은 노닥지로 모험이 시작하는데... 개성 폭발! 차원이 다른 코미디의 탄생! 울 가을, 작정하고 웃기는 코믹비스타가 온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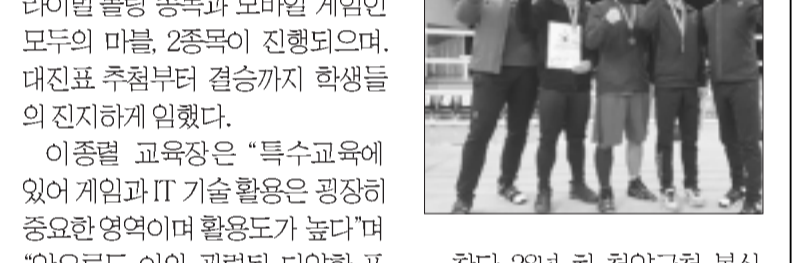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서산교육지원청, 특수학급 e스포츠대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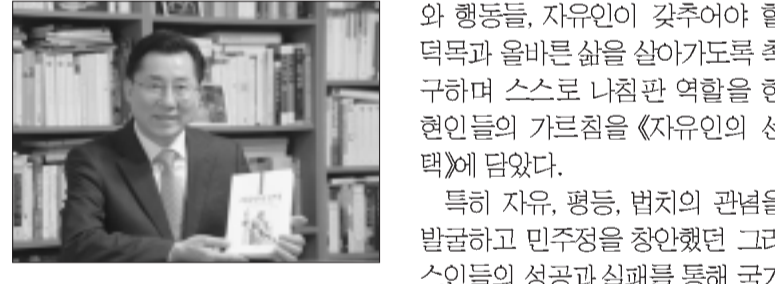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교육실에서 2018 서산 특수학급 e스포츠대회를 실시했다.

청양군청 복싱팀 "2020 도쿄올림픽으로 가자"



청양군청(군수 김돈곤)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제72회 전국복싱선수권대회를 겸해 열린 2020 도쿄올림픽을 기념하여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출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박경귀 원장, 인문학 책 '자유인의 선택' 출간



아산참여자치연구원 박경귀(58) 원장이 《자유인의 선택》을 펴냈다. 2016년에 《그리스, 인문의 향연》을 출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우수출판콘텐츠로 선정'된 이래 두 번째 인문학 책이다.

적 호기심을 갖고 있는 교육자, 언덕목과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며 스스로 나침반 역할을 한 현인들의 가르침을 《자유인의 선택》에 담았다.

특히 자유, 평등, 법치의 관념을 발굴하고 민주정을 창안했던 그리스인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 리더들로 인해 자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독자들은 이 책의 곳곳에서 민주정을 창안하고 구가하던 고대 그리스의 영광과 뛰어난 지도자들의 활약을 만나고, 한편으로 민주정의 타락을 경계하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따가운 지적과 탄식을 듣게 될 것이다.

바로 지략과 용맹으로 나라를 구한 영웅호걸들의 탁월한 리더십과 현신, 설득적 수사를 목격하고, 가치 있는 삶을 권면하는 철학자들의 통찰과 예지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모두 응고된 지혜를 통해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를 여는 '자유인의 선택'에 소중한 지침이 될 듯하다.



오비맥주 '물과 사람 60초 영화제' 시상식 개최 오비맥주(대표 고동우)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겨레대입구 레이크스퀘어에서 '물과 사람 60초 영화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남도의회 사무처 직원들, 도의회 의원들에게 장미꽃 전달 충남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14일 2018년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와 감사의 표현으로 의원들에게 장미꽃을 전달해 훈훈한절이 넘쳤다.



세종시교육청, 2018 노사가 함께하는 연탄나눔 봉사활동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민병태, 이하 공무원노조)은 '15일 조치원을 일대 목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6가구에 연탄 2,000여 장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대덕대, 2018 대덕아카데미페스티벌 성료 대덕대학교(총장 직무대행 박계호)는 지난 11월 19일부터 2주간 '2018학년도 대덕아카데미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졸업생(재학생 포함)들의 창의적 사고와 자기주도학습의 열정을 담은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로 특학, 학생포트폴리오, 캡스톤디자인, 졸업작품공전, 학술제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함께 '리먼' 행복한 연말 청양군 장평면(면장 김대수)에 지난 10일 정평중학교제2회 동창회(회장 이은규, 총무 김훈)가 장평면을 방문해 동창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회비로 경로당에 전달해 달라며 리먼 25학소를 마련해 기탁해 왔다.



(사)한국쌀전업농 예산군연합회, 사랑의 쌀 기탁 예산군은 (사)한국쌀전업농예산군연합회(회장 김충국)가 13일 군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10kg 100포(2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제일리교회, 도교면 행복기움에 후원금 기탁 아산시 도교면 도교제일교회(담임목사 이종환)는 13일,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도교면 행복기움추진단(단장 이용인)에 후원금 15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후원금은 도교제일리교회 교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으로 도교지역의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사진협회 서산지부

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입상자 시상식

한국사진협회 서산지부(김영환)가 지난 15일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서산관광사진 전국공모전에 입상한 입상자 시상식을 가졌다.

금상에는 목장을 배경으로 촬영한 예산에 거주하는 이문희 작가가 서산시정상을 받았고 특별상은 서산읍죽마늘 홍보부스를 촬영한 서산시 최홍길 작가가 서산시정상을 수상 했다. 버드랜드를 촬영한 태안의 박민수 작가와 서산개심사를 배경으로 촬영한



서산개심사를 배경으로 촬영한 성남시 정재정 작가가 각각 은상

은 서산시의회의 의장 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행정부 서산시장, 임재관 서산시의회의장, 안효돈, 조동식, 이경화, 시의원, 성일종국회의과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사진협회 회원 등 1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영환 지부장은 서산시 관광에 관심을 갖고 관광 사진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수상자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대덕구의회 오동환 의원

우수자원봉사 인증서 수상



대전시 대덕구의회(의장 서미경) 오동환 의원은 지난 12월 7일 시청

대강당에서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가 주관한 '2018 대전시 자원봉사가족 한마음대회'에서 우수자원봉사 유공 동장 인증서를 받았음을 뒤늦게 알렸다.

오동환 의원은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웃 사랑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여 모두가 행복한 대전 조성에 기여한 공적을 기관으로부터 증명을 받았지만 면목이 서지 않는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봉사는 본인의 사명이며, 앞으로도 대전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자원봉사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정환기자

국립 한밭대, 김선기 평생교육원 교수 서예작품 기증



국립 한밭대학교(총장 최병욱)는 지난 14일 대학내 국제교류관에서 김선기 평생교육원 서예교수로부터 서예작품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한밭대학교 최병욱 총장과 김선기 서예교수, 김운기 기획처장, 평생교육원 서예수강생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전달식에서 김선기 교수는 "국제교류관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이리리요라는 작품을 통해 우리민족의 일을 전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병욱 총장은 "귀하고 훌륭한 작품을 기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잘 보존하여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기증받은 '이리리요'는 우리민족의 얼이 담긴 한글의 자형을 과격적으로 재해석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흥취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낸 작품이다. 김정환기자



건양대, 사랑의 연탄나눔 실천

군사경찰대학·글로벌경영대학 교직원과 학생들

건양대학교(총장 이원욱) 군사경찰대학(학장 이세영)과 글로벌경영대학(학장 이영환) 교직원과 학생들이 40여명은 14일 대학 인근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연탄 나누기 봉사를 통해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군사경찰대학은 올레초 학생들이 중심이 돼 연말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로 하고 한 해 동안 성공을 모집했다. 또한 이 소식을 접한 글로벌경영대학은 좋은 취지에 맞춰 학생 동아리 '키쭉'(동아리대표 글로벌호텔관광학과 김수용)과 함께 플라마켓 및 일일커피페이기를 개최해 성공을 모금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렇게 모여진 성공으로 두 단과대학은 연탄 1,200장을 구입해 14일 논산 지역의 어려운 이웃 3가구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성규기자

당진화력,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발걸음

행복 걷기 캠페인 성금 모아기탁

한국동서발전(주)당진화력은 지난 14일 오후 2시 당진시청 1층 대강당에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1,050만 원 상당의 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당진시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당진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여 '나눔 도시 당진' 구현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으로서 당진화력은 2011년부터 참여해 오고 있다. 이번 당진화력에서 기탁한 성금은 지난 11월부터 충남체육회와 당

진보건소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당진화력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함께하는 행복 걷기 캠페인'으로 모아져 더 의미가 있으며, 성금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당진화력은 희망 나눔 캠페인과 함께 범죄 취약지역에 SMART 보안등을 설치해 범죄예방을 돕고, 심폐자폐를 지원해 노인 입지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취약분야의 지속적 지원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장기요양서비스 모니터링 우수사례 간담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지난 14일 공단 대전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장기요양서비스 모니터링 우수사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 경우 또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제출한 7개 기관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사례 발표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우수사례를 발표한 기관 참석자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안에 대해 서로 공유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안희무 본부장은 "올해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공단에서는 서비스 양보다는 질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장 일선에 계신 종사자분들과 여러분의 협조가 우선임을 강조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오늘 참석하신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분들은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앞으로도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 높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송병배기자



신창면, 나눔캠페인 성금 모금 행사

'희망2019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집중 모금행사

아산시 신창면(면장 김정식)은 지난 13일, 신창면행정복지센터 1층 로비에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희망2019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집중 모금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웃을 돕기 위한 어린이집 원아들의 소중한 저금통 개인 및 기업체는 신창면 복지팀(041-537-31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협의회가 함께했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기업체와 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아 따뜻하고 훈훈한 모금으로 소중한 성공이 모아졌다. 한편 신창면은 희망2019 나눔캠페인 '성금모금'을 2019년 1월 31일까지 접수받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체는 신창면 복지팀(041-537-31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클래식과 코로스의 만남, 송년음악회

오는 20일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메시아' 선보여



전속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연주곡으로는 제1부 예언과 탄생, 제2부 수난과 속죄, 제3부 부활과 영생 등으로 구성되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서곡을 시작으로 아리아와 중창, 레치타티보, 합창 등 여러 형태의 노래로 웅장한 무대와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하게 된다.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윤승업의 지휘 아래 교향악단의 연주와 함께 소프라노 박현주, 테너 양인준, 바리톤 정복기, 카운터 테너 조요한 등 4명의 국내 유명 성악가와 65인조의 합창단이 출연하여 환희와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의 입장료는 A석 1만원, B석 5천원으로 초등생 이상 입장 가능하며, 입장권은 공주문예회관 홈페이지에서 출전하여 (http://acc.gongju.go.kr)에서 예매 가능하다. 공주=정성범기자

알림
▲ '평양이 온다' 남북해외공동사전전 대전전시 개막식 = 12월 17일(월) 오전 11시, 대전시청(2층)로비 전시시간: 17일 ~ 31일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1월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월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월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농협 대전본부, 지난일을 돌아보며 도약하는 새해 구상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전용석)는 지난 14일 농협대전본부 3층 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계획 보고회는 부서별로 2018년 우리가 한 일을 돌아보고 미흡한점에 대한 반성 그리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했다.

대투 논단



김헌태 논설고문

2018년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어느 해나 마찬가지로 올해도 세월의 분위기를 말해주듯이 구세군 자선냄비의 종소리와 크리스마스 캐럴도 거리에 울려 퍼지고 있다. 곳곳에는 송년 모임도 한창이다. 푸짐한 눈도 내리고 때때로 한파도 겨울을 실감나게 한다. 경제한파는 더욱 극심해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 졌다. 최저임금이 52시간 근로시간이니 하면서 틈이나 혼란했던 탓이다. 언제 이처럼 서민생활이 활력을 잃고 표류했는지 모를 정도이다. 자영업자들의 허탈한 눈망울이 가슴을 저미게 하는 세말이다. 이웃을 돕는 사랑의 온도탑도 생각보다 온도가 낮다. 유튜브나 SNS에는 갈등과 대립이 연일 도배하고 있다. 올 한해 남북회담 등 역사적인 사건들이 모든 이슈를 사로잡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보다 국민적 감동이 사들여지지 못했다. 남북갈등의 끝만 갈라지며 다시 다나했던 격동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 한해는 젊은이들에게는 최악의

2018년 세말의 마음

청년실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닌 한해였다. 공시생 40만 명 시대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저출산의 진통까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0년을 넘게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는 경우도 생겼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은 아예 공시생의 길로 나서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죽 쳐진 어깨가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졸업이 곧 실업인 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내지 못한 채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도 새해 푸른 희망을 안고 출발하여 벌써 저물어 한 해의 세월을 뒤로 서서도 아직도 실업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실상이니 안타깝기만 하다.

서울역이건 대전역이건 역마다 넘쳐나는 노숙인들의 모습이 애잔하기만 하다. 사랑의 밥차들이 등장하여 이 추운 겨울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밥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추운 겨울을 지라도 등지에서 잠을 청하는 이들의 모습이 그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오늘도 이곳저곳을 헤매며 희망을 잃은 삶의 단편을 보여주는 노숙인들의 겨울나기는 그래서 더욱 황량하게만 느껴진다. 사랑의 쌀나눔운동본부가 전국에서 노숙인들에게 제공하는 사랑의 밥만도 하루 5,500명분이나 된다고 한다. 이런 희생과 봉사가 우리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을 사랑으로 보듬고 있다. 이런 열정을 보이고 있는 분이 바로 이선구 목사님 부부이다. 사랑과 봉사의 화신이다. 부인은 임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노숙인들에게 사랑의 밥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바로 감동

그 자체인 봉사의 삶으로 우리 사회를 밝게 비추고 있다. 날로 강박해지는 삶속에서도 이런 값진 사랑과 헌신적인 봉사가 더욱 아름답게 다가서는 이유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용기와 꿈, 희망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노숙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이선구 목사님 부부의 헌신적인 손길은 오늘도 팔순 고령의 어려운 노인들에게까지도 다가서고 있다. 매년 어려운 노인들에게 쌀잔치도 배품하며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삶 자체가 사상이자 헌신이며 나눔이다. 이런 훌륭한 분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하며 자랑스럽다. 이선구 목사님 부인은 임투병 중이면서도 살아있는 한 봉사를 멈추고 싶지 않다는 강인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많은 이들이 배우를 함께 기원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 사회 너무나 소중한 분이기에이다. 세월 훈훈한 감동의 이야기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진통을 경험하고 있다. 자영업을 하던 폐업을 하는 사람들과 늘고 있다. 연말까지 아마도 100만개 정도가 폐업을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사가 되지 않아 빚더미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삶을 포기하고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 삶을 포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현실에 대한 자포자기 수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힘든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며 극단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사회지도층의 자살이 그러하며 사업가들의 자살이

그러하다. 연예인들의 자살도 그렇다. 요즘은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들의 정신키장까지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간간히 낙방의 고배를 마신 공시생들의 자살소식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적폐청산이란 이름 아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거나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들의 피로감도 더해간다. 부패공화국이란 말이 들릴 정도로 구석구석이 썩어 있었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환부를 도려낸 것은 도려내야하지만 상처만 만지작거리며 세월만 죽이는 것도 바람직한 처사는 아니다. 반대편은 모두가 적폐대상이라는 사고방식도 금물이다. 법과 원칙, 질서 속에 모든 것이 합리적인 청산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은 칼자루를 쥐고 있지만 훗날 또 다시 적폐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악순환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이런 혼란과 혼돈이 지속되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구석에서 얼박자만 날 뿐이다. 꿈과 희망의 사회가 아닌 처벌과 단죄의 사회가 된다면 이는 결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을 것이다. 2018년 세말에 서서 대한민국을 되돌아보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특히 개인의 일상에서도 못다 이룬 일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돈하며 2018년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18년의 세말은 모든 것을 비우고 떨칠 건 떨치고 어두운 것은 훌훌 털어버리고 있을 건 잊어 버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아야 할까 생각된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세말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닐까 싶다.

그러하다. 연예인들의 자살도 그렇다. 요즘은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들의 정신키장까지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간간히 낙방의 고배를 마신 공시생들의 자살소식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적폐청산이란 이름 아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거나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들의 피로감도 더해간다. 부패공화국이란 말이 들릴 정도로 구석구석이 썩어 있었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환부를 도려낸 것은 도려내야하지만 상처만 만지작거리며 세월만 죽이는 것도 바람직한 처사는 아니다. 반대편은 모두가 적폐대상이라는 사고방식도 금물이다. 법과 원칙, 질서 속에 모든 것이 합리적인 청산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은 칼자루를 쥐고 있지만 훗날 또 다시 적폐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악순환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이런 혼란과 혼돈이 지속되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구석에서 얼박자만 날 뿐이다. 꿈과 희망의 사회가 아닌 처벌과 단죄의 사회가 된다면 이는 결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을 것이다. 2018년 세말에 서서 대한민국을 되돌아보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특히 개인의 일상에서도 못다 이룬 일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돈하며 2018년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18년의 세말은 모든 것을 비우고 떨칠 건 떨치고 어두운 것은 훌훌 털어버리고 있을 건 잊어 버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아야 할까 생각된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세말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닐까 싶다.

기고

자동차 안전띠, 위대한 발명품으로 꼽히는 이유



박길수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장

전띠를 매지 않고 잠자는 중이었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도로안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 98.6%, 뒷좌석 99%로 거의 모든 승용차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도 앞좌석 97%, 뒷좌석 96%로 착용률이 매우 높았고 영국과 스위스, 캐나다 등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80~90%대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으면 사망할 확률이 크게 높아져 치명적인 피해를 날기 십상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분석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률이 1.48로, 착용했을 때 0.36보다 사망률이 4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만 보더라도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탑승 중 ‘귀찮다, 답답하다, 불편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다. 특히 승용차나 택시 뒷좌석 안전띠는 큰 흉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 88.5%, 뒷좌석 30.2%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의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개월의 유효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의 범위를 일반도로로 확대해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뿐만 아니라 뒷좌석 동승자까지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80년 고속도로에 이어 2011년 자동차전용도로로 확대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이제 모든 도로로 확대되는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할 경우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을 중심으로 안전띠 착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을 보이자, 정부가 법으로도 강제함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앞좌석 못지않게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크게 줄여준다. 무엇보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은 물론 앞좌석 탑승자에게 심각한 위험이 가해진다. 예를 들어 시속 50km 상태에서 충돌할 경우 뒷좌석 승객이 3톤 이상의 힘으로 앞좌석을 충격하기 때문에 앞좌석 동승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뿐만 아니라 앞좌석에 탄 동승자까지도 보호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안전띠

미착용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갈으로써 후속 차량에 의한 치명적인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안전띠는 자동차의 여러 부속품에서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운전자 본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동승자가 미착용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운전자에게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돼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만 그 의무가 적용되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애틀의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더 중요하다. 더 이상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안전띠 착용의 필요성과 함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한 집중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법규부족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

올바른 사회는 무질서를 질서로

우리 사회에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말이 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것은 원리 원칙이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다는 말로 통한다. 설령,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에서 시작된 냉소적인 표현인 것 같다.

원리 원칙이 무시되고 너무 많은 예외가 인정되는 사회는 이미 원칙이 무너진 사회다.

이와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그 사회는 ‘힘에 의한 질서’라는 억압적인 질서가 되고 말 것이다.

법은 사회의 모든 질서를 떠 받쳐주는 뼈대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의 규범과 관습에 따라 자기를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이성적 존재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극히 이기적이고 야수적인 충동에 흔들리는 일면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윤리가 이러한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예로부터 인간에 대하여 낙관적 견해를 갖고 있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착한 심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사회질서를 법과 형벌로 유지하기보다는 예의와 같은 윤리적 덕목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이것이 오히려 법의 발전을 늦추는 원인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정치, 사회제도를 발전시키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인간은 무조건 착하고 선한 존재로 보기보다는 인간은 언제나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 법을 발전시켜왔다면 오히려 법질서와 민주주의를 더 빨리 정착시켰을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있다.

한 나라의 법질서 수준으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역시 교통질서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직도 교통질서에 대한 의식이 생활화되지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아무리 질서를 외치고 단속을 해도 운전자들은 물론 보행자까지도 교통질서를 위반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음주운전, 과속운전, 신호위반, 주정차무질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우리사회에서는 질서가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것은 문화국민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부끄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교통법규처럼 가벼운 처벌이 따르는 법규인수록 ‘들리면 죄가 되고 안 들리면 죄가 안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갖기 쉽다.

그러나 법규위반은 언제나 가벼운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가벼운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무거운 법규가 제대로 지켜질 리가 없을 것이다.

질서외식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단속보다는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질서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제도나 시설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줄을 서고 있으면 틀림없이 나의 순서가 온다는 생각, 우왕좌왕 하다가는 오히려 큰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이 하나의 확신으로 뿌리 내리게 되면 질서는 자연스럽게 지켜질 것이다.

원리 원칙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다는 확신이 모든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질서는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질서는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경인 차의 역할을 하고 문화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국회에서 음주운전을 비롯한 생활 관련 법률의 통과는 환영할 일이다.

‘윤창호법’ 소주 한잔도 음주운전이다

기고



윤정원

천안남경찰서 원성파출소 경위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범정형이 상향된다.

또한 음주운전 등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 등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1만 4317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110만 8193건의 10.3%를 차지해 교통사고 10건 중 1건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1잔 정도면 괜찮겠지’, ‘술마 걸리겠어’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회식자리에서 음주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길 바란다.

대덕구 증리동 2구 원주민장학회 미래 인재 육성 장학금 전달

대전 대덕구 증리동 2구 원주민장학회(회장 이병희)가 지난 14일 증리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해 15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 610만원을 전달했다.

이병희 회장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정진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짧은생각·바른신문

발행·편집인 김헌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인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인내 042)538-1602	광고신청인내 042)538-1603	구독료 월 1만 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 동양인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E-mail : d-mail@ham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T 대전투데이 연중 환경 캠페인

지구를 살립시다!



‘지구 온난화’ 지금 멈추지 못하면, 우리들의 **내일**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주 관 | DT 대전투데이 DTN 대전투데이

후 원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KHFC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DS 주식회사 대생리글린 대표이사 SHWEN OHN CHRISTOPHER KR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AT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대전광역시교육청